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시107:1)

꽃다발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제 1장 구원의 확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만큼 희열을 느끼는 일도 그리 많지 않다. 생리적으로 몹은 건강한데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통찰력이며, 기쁨의 원천이다.

1. 그릇된 접근

1) 요 1:13-혈통

(가족 중에 교역자가 있음)

2) 요 3:10-선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음)

3) 요4:20-예배

(교회의 정기 모임 참석)

4) 마7:22-활동

(그리스도인의 활동에 몰입함)

이상과 같은 자신의 표준에 따라 나도 구원받은 것이려니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것이 구원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구원의 증거는 아니며, 일시적인 자기 위안일 뿐이다.

2. 확신에의 길

1) 객관적 증거-말씀의 증거

① 하나님의 약속(행16:31)-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고 한 것은 누구의 약속인가?

② 그리스도의 사역(히9:28상)-예수님께서 무엇을 담당
하셨는가?

③ 성령의 인치심(엡1:13)-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3중적인 확신을 주신다.

2) 주관적 증거-생활의 증거

① 주 되심의 고백(고전12:3)

② 관심사(롬8:5)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일(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등)
에 더 관심이 쏠리고 추구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생긴다.

③ 성품(갈5:22-23)

또 하나의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성경의 열매,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증거, 즉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는 상호 보충적이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수록 이 증거도 뚜렷해진다. 그런데 그 증거를 우선 감정적인 변화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3. 올바른 순서

‘구원을 받았다면 왜 기쁨이 없나?’ ‘왜 감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가?’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가?’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때에 이렇게 느꼈다. 눈물이 솟구쳤다’ 등의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당시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 또 감정 변화는 구원 받은 사실에 잇따라 생기는 법이지, ‘기쁨이 생긴 다음에 구원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요 4:50 신하가 아들이 회복을 확신한 근거가 무엇인가?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어떤 감정 변화를 중요시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신실성을 의뢰했다. 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생겼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들이 회복된 사실 (Fact),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 (Faith),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 (Feeling), 이 세 가지 사이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

사실(Fact): 객관적인 사실의 진술-아들의 회복

믿음(Faith): 그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임-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

기쁨(Feeling): 이에 따른 전인격적인 행복감-신하의 기쁨.

즉, 신하가 기뻐기 때문에 아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 온 것이다. 기쁨(감정)은 구원 받은 사실의 결과이다.

한 인간이 자신의 출생 사실과 출생일 등을 추호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의 충만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호적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형수가 죽기 며칠 전 대통령의 특사를 받았다. 이 경우 사실(Fact), 믿음(Faith), 느낌(Feeling)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자. (그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 특사령을 의심하고 감옥에 그대로 있던가, 아니면 믿고 밖으로 나가든가)

제 2장 믿음의 본질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전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1. 믿음이 아닌 것

- 1) 맹신-‘믿음’은 시골 할머니처럼 아무 비판 없이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믿어 버리는 맹목적인 굴종 행위가 아니다.
- 2) 자기 최면-믿음은 실재 하지 않는 것을 실재 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자꾸만 그렇게 시인하는 반복적인 노력도 아니다.
- 3) 희망적 기대-믿음은 인간이 나약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하고 동경하는 연습이 아니다.
- 4) 적극적인 사고방식-믿음은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발동시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의 훈련도 아니다.

2. 세 종류의 믿음

- 1) 구원 받는 믿음(얻은 구원)-로마서, 갈라디아서
행 16:31

갈 2:16

- 2)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누리는 구원)-사도행전
마 17:17, 20

막 5:36

요 14:1, 요일 5:4

3) 삶을 변화 시키는 믿음(이루어가는 구원)-야고보서

눅 19:8

약 2:17-19

3. 믿음의 진면목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내용,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대상,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요 20:31

요 10:38, 14:11

믿음은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 분위기, 또는 자기 신념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엡 2:8-9) 믿음은 어떤 사실(Fact)과 연관되어 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이나 신비한 체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다.

4. 믿음의 두 가지 측면과 성장

1) 믿음의 객관성과 성장

믿음이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점점 확실히 알아 갈 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믿음이 흔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 간 과정을 살펴보자.

- 요 1:41,42

- 눅 5:8

- 마 16:16

- 행 2:36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 감으로써 가능했다.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않는 한 결코 그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great faith in God) 보다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는 것’(faith in Great God)이 더 중요하다-허드슨 테일러 (Hudson Taylor)

2) 믿음의 주관성과 성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삶을 의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머리지식으로만 끝나고 개인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 마 14:25-32에 나타난 베드로의 믿음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살펴보자.

- 객관성

- 주관성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씀은 믿음의 두 면 중 어떤 면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이 둘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믿음으로 나쁜 약을 먹는 것과 적은 믿음으로 좋은 약을 먹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1) 롬 10:17/ 눅 8:15

 롬 4:20

2) 마 17:20-21

* 씨멘트(객관성) + 물(주관성) = 콘크리트(단단한 신앙)

제 3장 하나님과의 사귄

생각을 여는 질문

1.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2.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을 하고, 하지 않는 것, 또는 분주한 종교 활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행동하는가를 언급하기 전에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데 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과 교제에서 교회 봉사도, 전도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 외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마15:8)

1. 성경의 예

1) 열 두 제자를 뽑았을 때-막3:13-15

-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

-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2)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딤후2:1-2

-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2)

- 부탁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디모데 자신에게 먼저 무엇이 요구되었는가?

3)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곧 구원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롬5:1)

2. 하나님 알기

1)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마7:23)

2) 하나님을 아는 것

- 대상 28:9

- 호 6:3(힘써)-두 그루의 나무이야기(쉽게 뽑히는 정원수와 2km까지 뺨은 사막의 나무)

- 창 4:1

- 요 15: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Knowing God)을 말한다. “안다”(to know)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생활

속의 어떤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측정법

1) 호칭 사용의 절실성-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가?

2) 자발성-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자발적인가? (예배, 기도, 찬송 등)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가?

3) 친밀성-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가?

4.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

1)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

- 골1:10

- 벧후3:18

2)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한다.

- 예수님의 모범(막1:35)

3) 하나님을 아는 방법

- 말씀(벧전2:2)
- 기도(시27:7-8)
- 찬송(시95:2)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지식 가운데 점점 자라나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아니라 나의 가슴과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남으로서 가능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송이다.

적용을 위한 질문

1.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분을 생활 속에서 자주 느끼며 살아가는가?
2.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또 노력해 왔는가?
3.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기 위한 우리의 작은 결심을 서로 이야기 해보자.

제 4장 죄와 용서

생각을 여는 질문

1.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중생한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해 나가는 삶에 때로는 예기치 않던 장애물이 끼어들기도 한다. 이런 걸림돌 중 특히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의 문제와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쉽게 풀리지 않는 괴로움 중의 하나는 어떻게 ‘의로운’ 자녀가 되었 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인 채 남아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심한 죄의식과 갈등의 상태를 넘어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라며 자신의 구원 자체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미 용서 받았으니 괜찮겠지”하는 자기방임으로, 또는 “언제 때가 되면(수련회나 부흥회) 그때 다시 만회 해야지”하는 막연한 기대로 자신을 방치하기도 한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우리의 본질)

- 엡1:7

- 롬3:28/갈2:16

2) 죄 용서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계속된다.(우

리의 현실)

- 요일2:1

3)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죄와 싸워야 한다.(우리의 각오)

- 마5:29,30

- 히12:4

- 요일3:9

번져치 못한다-‘맛 한번도 저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먹고 마시듯 상습적으로 번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4)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죄할 수는 없다.(어쩔 수 없는 한계)

- 바울(행15:39/롬7:15)

- 베드로(행10:34)

-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체의 정욕(고후 7:1/벧전 2:11)

우리의 저성은 중생 후에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

5) 연약해서 쓰러진 경우 곧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다보아야 한다.**(우리의 소망)

- 시103:8-14

- 히10:17

6) 이 ‘**올려다봄**’은 자백과 돌이킴으로 나타난다.(우리의 할 일)

- 요일1:9

- 골2:23 (금욕은 답이 아니다)

7) 결국 이상의 과정은 일생 동안 계속되기 마련이다.(우리의 각오)

- 롬7:21-25/엡4:22

8) 우리의 완전한 거룩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미래의 소망)

- 요일3:2

2. 중생 이후의 죄 사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1) 자백, 회개(요일1:9/마 6:11-12)

죄 용서의 *cycle*: 변죄-자백-용서. '죄를 자백한다'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고 말하는 것'(*to say the same thing*)이다. 이 죄의 자백은 죄성(*sin-8절*)뿐 아니라 죄목(*sins-9절*)까지를 말한다.

2)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 받지 못하는가?(시32:3-4)

3) 죄를 자백(회개)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 주시는가?(시32:5/ 요일1:9)

4) 회개 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롬 6:12,13/엡4:22,24)

3. 용서의 기초(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 요일1:9

- 시103:8-14

- 마18:22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저 용서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구원도 단지 십자가를 바라봄(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요3:15) 이와 같이 저 용서도 단순히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봄(볼려다 봄)으로써 가능하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저 용서도 감정 이전에 약속 때문이다. 십자가는 중생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생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

4.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

1) 회개하기 전에는 죄 용서 받지 못하는가?

2)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하는가?(롬5:1, 20)

3) 중생 이후의 죄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멀어짐. 영적침체. 능력 상실. 능력 사탕 이전.

4) 믿기 전후의 죄의 권세의 차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저의 종(롬6:7, 17)이었으나 이제는 비록 저성이 남아 있다 해도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한다. (롬6:14) 우리 안에 저가 있으나(요일1:8) 우리가 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 (엡2:2)

제 5장 침체와 회복

생각을 여는 질문

1. 심한 depress, 나아가서 우울증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2. 신앙생활이 기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3. 영적인 침체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1. 먼저 알 것은

1) 회의, 의심, 또는 영적인 침체 자체가 죄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지 시험자체를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마6:13)

2)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눅 7:18-19)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엘리야 같은 인물-말 4:5, 마 17:9-13/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눅7:28)

2. 영적 침체의 증상

- 1) 기쁨 상실
- 2) 의심,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림
- 3) 불안, 염려, 짜증, 불평(시42:11상)
- 4) 영적 무관심-예배, 기도, 말씀생활에 소홀해짐
- 5) 자기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3. 영적 침체의 원인

영적 침체 현상은 앓과 유사하다.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암 세포가 있다. 암이 발병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 한 것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 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남 후에 감지할 수 있는 크기로 된다.

1) 기질적 원인-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성품(M. Loyd Johnse)

2) 육체적인 원인-피곤(엘리아) 과중한 일(왕상19:4)

3) 육체적 시련과 고통-세례요한(마11:2)

4) 우리의 범죄와 사탄-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5) 영적 나태함-베드로(기도 실패)

- 마26:41-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 벰전5:8-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나태는 이미 치의 시작이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영적 나태는 침체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다.

4. 회복의 방법

1) 엘리아의 경우-육체적 휴식(왕상19:5-8)

2) 세례요한의 경우-공개(openness)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눅7:19)

3) 올려다 봄

구원도(요3:15), 죄 용서도(요일1:9), 영적 회복도 주님(십자가)을 올려다봄으로써 가능하다.

- 히12:2상

- 시42:11

- 시73:16-17

- 마14:31상-즉각 도우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4) 하나님의 약속(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사26:3 주께서 ()가 견고한 자를 ()에 ()으로 지키시리니

5) 예방이 최상의 예방책. 공격이 최상의 방어. 다시 찾아온 일곱 귀신의 예(눅11:24-26). 영적 열심(기도, 말씀 생활, 예배 등)은 영적 회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회복의 원인(방법)이기도 하다.

6) 평소에 면역성을 키워야(말씀과 기도 생활) 미리 대비해야.

7) 다른 사람의 도움(산소 호흡과 같은 중보기도)

- 베드로의 경우(눅22:31-32)

-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전4:12)

6. 침체의 디딤돌을 뛰어 넘어

1) 바울의 경우

- 롬5:20: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롬7:24-8:2:

2) 베드로의 경우

- 요21:18-19 ‘어떠한 죽음’

- 행4:19-20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영적 친체를 당하지 않는 것만이 치상이 아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 영적 친체는 없는 것이 좋긴 하지만 오히려 영적 친체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 질 수 있기에 나쁜 것만 아니다. 영적 친체가 없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약함과 사탄의 시험으로 기암 친체에 빠졌다면 친체의 기쁨이 아니라 회복을 통한 더 단단한 신앙에로의 도약의 기쁨(디딤돌)로 살아야 한다. 영적친체는 위기인 동시에 기쁨인 셈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친체마저도 은혜이다.

제 6장 기도와 응답

생각을 여는 질문

1. 기도하면 흔적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흔적이 있을까?
2.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자.

1. 기도가 아닌 것(기도에 대한 오해)

- 1) 기도는 독백(주문, 주술)이 아니다.
- 2) 기도는 요술 방망이나 ‘열려라 참깨’가 아니다.
- 3) 기도는 억지 요구가 아니다-마치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여서 우격다짐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싸워서 얻어 내는 것이 아니다.

2. 기도의 2가지 측면

1) 교제의 측면-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마 6:8-9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_____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지(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고상한 형식을 빈 염려이거나 주문(주술)에 지나지 않는다.

2) 간구의 측면-기도는 하나님과의 막연한 교제(대화)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다.(마6:11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의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보완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진정한 간구가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교제) 자만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다.

3. 기도의 방법(자세)

1)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하라. 기도의 제목(What)보다는 기도의 대상(Who)을 더 많이 느껴야 바른 기도이다. 하나님께 **무엇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 마28:18

- 엡3:20

2) 영으로 마음으로(고전14:15)

- 삼상1:15

3)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 왜? 마6:8 _____

_____기 때문에.

-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마6:33 _____

4) 그리스도를 통해(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 요14:14/ 16:24

- 히4:14-16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기도의 대상)은 _____이

시고 우리의 기도의 통로는 _____이시다. (We pray to God **through** Jesus)

- 5)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 마21:22/ 막 11:22-24
 - 요15:7
 - 출33:11
 - 요15:12-14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떡합니까?” 이 믿음 역시 구원 받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수록 커진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 6) 열심히(간절히) 기도하라.
 - 눅18:1
 - 렘33:3
 - 약5:17
- 7)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 요15:7
 - 빌4:6
- 8) 삶으로 기도하라
 - 잠15:8

4. 기도의 응답

1) 기도 응답의 근거-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절함(억울함)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

) 때문이다.(요16:24)

2) 기도 응답의 확신(요일5:14-15)

3) 기도 응답의 5가지 유형

① Yes-한나의 경우(삼상1:11/19)

② Yes and More-솔로몬의 경우(왕상 3:9/11-13)

③ Yes but wait-죽임 당한 영혼들의 경우(계6:10/11)

④ No but other-다윗의 경우(대상17:2/11,12)

⑤ No-바울의 경우(고후12:7,8/9)

5.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

1) 약4:2-실제로 구하지 않기 때문(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여야 한다.)

2) 약4:3-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

3) 약1:6-의심, 중단(눅18:1)

4) 잠15:8-기도 따로, 생활 따로 이기 때문

결심:

제 7장 남을 위한 기도

생각을 여는 질문

1. 남을 위해 기도해 보았는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2.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흔적이 있을까?

1. 중보 기도의 이유

1) 예수님의 모범

- 눅22:32

- 롬8:26

- 롬8:34/히7:25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 성경의 다른 모범들

- 아브라함(창18:22-33)

- 모세(출32:11-14)

- 다니엘(단9:16-19)

- 예레미야(애5:1-22)

- 바울(엡1:16/빌1:4)

3)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고로(요13:1)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17장)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마 5:44)의 실천으로 자신을 못 박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눅23:34)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마련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4) 지체간의 성숙

그리스도인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엡4:13-16) 혼자서는 결코 자랄 수 없다. 따라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성숙시키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도 성숙하게 된다.

2.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동냥하고, 남을 도와주듯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Pray for others)이 아니라 남의기도(Pray of others)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를 위해 (마치 나의 기도인양)기도 하는 것이다.

3.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1) 남의 육체적인 필요나 어려움을 위해서

- 아브라함(창18:22-33)-롯의 구원을 위해

- 모세(출15:25)-이스라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위해서

- 예루살렘교회(행12:5)-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2) 남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 엘리사(왕하6:17)-게하시를 위해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 바울(엡1:16-19/ 3:14-19)

- 예수님(눅22:32)-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3) 전혀 모르는 사람, 단체, 일을 위하여-선교사와 선교지역. 전쟁이나 재난을 당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라와 국민들 등

- 2002월드컵 때 한국 교회의 간절한 기도.

- 6.25 전쟁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의 철야 회개기도 후 인천 상륙작전 성공.

4. 중보기도의 유익

1) 나눔과 곱함의 원리(고후1:11)-고통은 나누고 응답의 기쁨은 더함

2) 삼겹줄(전4:12)-쉽게 끊어지지 않음

3) 산소 호흡과 같은 효과-남을 위한 기도는 절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4) 진정한 사랑의 교제-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보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기 어렵다.

적용을 위한 질문

1. 기도의 제목을 서로 이야기 해보고 일주일 동안 위하여 기도하자.
2.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을까?
 - 주중에 확인
 - 일주일 뒤에 만나서 함께 기도

제 8장 말씀의 능력

생각을 여는 질문

1.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왜 성경 읽기가 힘들까?
2. 성경 내용 중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말씀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거나, 불경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중얼거림으로써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즉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히브리서 11:11-12에는 하나님의 말씀(약속)-사라의 믿음(받아들임)-하나님의 약속 이루심(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의 도식이 잘 나타나 있다.

1. 성경의 예

- 1) 이사야서: 비와 눈처럼(사55:8-11)
 -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 표현된 것이고(8) 무엇을 이루는 수단인가?(11)

2) 히브리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히4:12-13)

-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

- 그 기능은 어떠한가?

-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실은 누구 앞에 선 것이나 다름없는가? 또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적나라한가?

2. 생명적 능력

1)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 벰전1:22

- 벰전1:23(약1:18)

- 벰전1:25

2) 영적 갓난아이가 된 후 성장해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벰전2:2)

3)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즉, 새로 거듭나) 제자들이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즉,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어 사귀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7:17)

말씀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은 우리가 새 생명을 공급받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 거듭난 후 지속적인 성장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세가 요구
될까?

3. 믿음의 화합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하나님의 역사)
을 맛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이였는가?

- 살전2:13 ① 믿음

② 믿음

2)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떻
게 하면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 히3:19

- 히4:2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랄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
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 말씀의 능력
을 경험할 수 있다. 즉, 그 말씀의 능력에 믿음의 화합이 있
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

4. 특권과 책임

1)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 딤후3:16

- 약1:21

2)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는 가장 큰 일이 무엇

인가?

- 딴후3:15

- 약1:18

3) 말쑤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적 유익을 얻은 자가 말쑤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 딴후3:17

- 딴후4:2

- 약1:22

하나님의 말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경헨하든 경헨하지 않던, 그 자체로 훌륭한 능력이 있으시다. 문제는 이 말쑤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한창하지 못함에 있다. 말쑤의 능력을 체헨하는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결심하고 서른 이야기 해보자.

주님이 주신 땅으로

(원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홍진호

A D² E D/A A
 주님이 주신 땅으로 - 한결 음식 - 나아갈 때에
 A⁷ C[#] F[#]/C[#] Bm B⁷ E⁴ E⁷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 나를 두렵게 - 하지만
 F[#] C[#] D⁷ E
 주님을 신뢰 함으로 - 주님을 의지 함으로 -
 F[#] C[#] D B⁷ E⁴ E⁷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 큰 소리와 치며 - 나아가네
 A⁷ E D A/E E⁷
 이 산지를 내게 주소 - 서 - 그날에 - 주께서 말씀 - 하신
 A⁷ E |¹. D B⁷ 3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 그 땅을 취하리
 E⁴ E⁷ |². D B⁷/E 3 E⁷ D/A A
 너 이 산지를 취하리 너 -

찬송하며 살리라

이 험한 세 상 나 살아갈 동 안
 이 작은 손 에 불 박혀 있고 서

내 주님 가신 길 걸으 며 내 주님 을 찬양 해-
 이 세상 다 시 오 시- 내 주님 을 맞으 리-

십자가 포 험 날 구한 그 사 랑
 보 무거 우 짐 다 벗겨 주시 며

나 매일 찬양 을 드려 도 불 부족 한 것 뿐이 니-
 그 아름다 운 금 면류 관 불 위해 예비 하시 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 하리라 - 내게 생 명 주신 주님 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원제: 옥합을 깨뜨려)

박정관



내 게 있 는 향 유 옥 합 주 깨 - 가 져 와



그 발 위 에 입 맛 추 고 깨 뜨 - 립 니 다 Fine



1. 나 를 위 해 험 한 산 길 오 르 - 신 그 발
2. 나 를위 해 십 자 가 에 달 리 - 신 그 발
3. 주 님 다 시 이 땅 위 에 임 하 - 실 그 때



결 응 마 다 크 신 사 랑 새 겨 - 놓 았 네
 흥 름 피 로 나 의 죄 를 대 속 - 하 셸 네
 주 의 크 신 사 랑 으 로 날 받아 주 소 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원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스데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 위 주소 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 게 하 소 서



하나 님의 사랑이 - 영원 히 함 게 하 리 -



십자 가의 길을 걷는 자에 게 순교 자의 삶을 사는 이에 게



조롱 하는 소리와 - 세상 유혹 속에도 -



주의 순결한 선부가 되리 라 내 생 명 주 님 게 드리 리

Copyright (C) 2001 All Nations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주께 가오니

Geoff Bullock

올네이션스 역

A E/G# F#m C#7 F#m

1. 주께가 오니 - 날새롭게 하 시고 -
2. 나의눈 열어 - 주를 보게 하 시고 -

E D E F#m E E/G#

주의 은혜 를 부어주 - 소 서
주의 사랑 을 알게하 - 소 서

A E/G# F#m C#7 F#m

내안에발 견한 - 나의연약 함 모두 -
매일나의 삶에 - 주뜻이뤄 지 도록 -

E D E D/A A E/G# F#m E

~ 벗어저리 라 - 주의사랑으로 - - - -
새롭게하소 서 -

D F#m E D/A A E/G# F#m E

주 사랑 - 나를볼드 시 - - 고

D F#m E A Bm7 A/C# Bm7 A

주 곁에 - 날이끄소 - 서 - -

D F#m E D/A A E/G#

독 수리 - 날개쳐올라 가 - - 듯 나주님과함

F#m E D D/E D/A A

께 일어나걸으 리 주의 사랑안에 - - - -